

국힘, 국회 운영 협치 모색... 민주, 특검법 등 강공 모드

영수회담 여야 반응과 향후 전략

국힘 "야당 독주에서 벗어나야"

민주 "채상병 특검법 곧 처리"

여야는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회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 회담을 계기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벗어나 여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도 불구하고 대야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일소해 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의 혹평에 대해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회의에서 "어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오늘부터는 국회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협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 어제 회담이 수포가 되게 하지 않는 첫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

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예고했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체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입법·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 커졌다면 대야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즉시 재추진하는 방안이 힘을 실리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9개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며 "그 다음 김건희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의사단체들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호소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의사단체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가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원내대표 친윤 이철규 단독 출마설...우려 목소리도

대통령실과 대립 우려 출마 꺼려

"총선 참패 책임 커" 당내 반발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힘을 받는 가운데 우려 섞인 반대 여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4선 김도읍 의원에 이어 3선 김성원 의원이 지난 30일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전무한 이례적인 형국이다. 이는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추대설에 힘을 실는 듯한 모양새다.

수도권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과 상의해본 결과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3선의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에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과 속의 중"이라며 "뭐라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이 의원이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과 경선하게 되면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계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이 의원의 원내대표로 추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성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 추대로 기존 상황과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처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적임자라는 논리에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서 극심한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우리 당의 모습에 우려하는 말씀들을 해줬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국

만만 바라보며 뜻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 추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상황을 지적하고 '국민'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당선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있는가. 대안도 없으면서 이 의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답답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함께 가야 하는데 누가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비윤(비윤석열)계 윤상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에서 (다른 후보들이) 선뜻 안 나서서 것이고, 그럼 면에 있어서 이 의원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서구정장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